

▣ 박근종 칼럼

죽어야만 보이는 '벼랑 끝 사람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 절실



최근 고립된 환경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장기간 돌봄에 지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면서 복지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행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와 행정의 '돌봄 사각지대'에 가로놓여 죽어야만 보이는 '벼랑 끝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은 우리 사회에 엄중한 책임과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선택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2014년 엄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로도 위기 가족의 '절망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중증 모녀 사망 사건', 2019년 '불천동 모자 사망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망 사건', 2022년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 같은 해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해 '신촌 모녀 사건' 등 잇달아 복지 사각지대의 아픔이 판박이처럼 반복됐지만,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했다.

최근에도 2023년 9월 8일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 옆에는 아들로 추정되는 4살 안팎 미등록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 아들은 병원에서 가까스로 의식은 회복했으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고, 지난해 7월 9일 대전 서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됐으며 지난해 5월 18일 전북 익산시에서 숨진 모녀의 참담한 극단적 비극이 발생한 지 두 달도 채 못 되어 또 다시 발생한 '판박이 비극'에 가슴이 아려지고 딱딱해진다.

지난 3월 18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다가족 주택에서 30대 남성과 그의 어린 네 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인 7세 첫째를 비롯해 5세와 3세 아이, 그리고 태어난 지 5개월 된 막내였다. 모두 어린아이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건 현장에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며 "미안하다."라고

적은 내용의 유서와 햄버거 봉투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담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아내가 범죄에 연루돼 수감된 이후 혼자 생계와 육아를 맡아 온 남성이 아이들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가족의 비극은 이들이 당국의 관리 대상이고, 4개 기관이 이상 징후와 위기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큰 자녀의 초등 학교 담임 교사는 아이가 학기 초 무단 결석하자 두 차례나 신고했고, 경찰 및 울주군 공무원과 가정 방문을 했지만, 아동을 학대한 흔적이 없어 학교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현행 매뉴얼이 학대 여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을 심각한 위기로 보지 못한 것이다. 울주군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쌓이자 지난 2월 부터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어느 기관이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귀한 아이들이 넷씩이나 잃지는 않았으리란 생각에 경찰, 울주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가슴 아픈 비극은 '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점을 극명하고도 여실히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울주군은 숨진 남성에 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고했으나 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생활고에 건강까지 안 좋은 젊은 가장 에겐 이런 절차가 때로 장벽이 되기도 한다.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매번 지적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상 징후와 위험 신호가 중점(重點)되는 경우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경우처럼 반복적인 긴급 지원, 단독 양육, 다자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등은 하나하나 심각한 위기 징후다. 특히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에는 더 능동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어서다. 최소한 돌봄 지원만이라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죄의식이 크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월 17일에는 전북 군산 경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모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은 올해 초부터 월세가 몇 달씩 체납되고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확인차 방문했다가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현장 확인에 나서는 데 숨진 모자는 올 1월부터 체납해 불과 한 달 차이로 이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10일에도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서 90대 노모와 그의 아들에 손자까지 3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장기간의 돌봄에 지친 아들이 벌인 일이라고 한다. 집 안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안부 확인차 해당 집을 찾은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長期化)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울산과 군산 두 가정의 비극은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에서 발생했다. 울산은 석유화학 산업 불황을 겪고 있고, 군산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후 이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중산층 바로 아래의 가구들까지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36%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 비율도 늘어 노인 가구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처한 이들이 보내는 구조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서둘러 가동하고, 기다리기 보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3,661명에 비해 263명(7.2%) 늘었다. 2020년 3,279명에서 5년 사이 매해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0.5명 늘었다.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09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성별로는 전체 고독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11월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이 내놓은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3.6%의 약 2.7배에 달하며, 고령화 정도가 높은 일본(25.3%)보다 훨씬 높다.

한국인이 오래 일하는 이유는 연금과 생활비 간에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는 경제적 공평에 시달리며 혼자 늙어가다 고독사에 직면할 확률이 매우 높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나이임에도 일자리를 찾는 원인이 더 충격적이다.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절반을 넘었다. 더는 노인 빈곤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노인빈곤율도 OECD 1위다.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 오래도록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보니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연금 소득대체율을 유의 미하게 높인다던 좋겠지만 현재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실업 등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청장년 구제책은 따로 필요하다.

역시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가구 구조와 인구 분포 변화 중심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고령 방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 고령층 자원봉사 기회 확대, 맞춤형 보육 서비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

같은 잘못에 대하여 '가난한 이들은 환경의 영향이 상당 부분 고려되는 반면, 부유한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의 도덕적 성격 탓으로 치부되곤 한다'라는 경향성이 드러난다지만, '가난하다는 건 자유통지 못하다는 것'이란 토로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선 기본적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렵다. 국가와 공동체의 보살핌이 없다면 참담한 가족의 비극은 앞으로도 여전히 반복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경우처럼 사실상 1명이 복지지원 전체를 담당했던 위기 신호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가 현장에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천수답 행정의 전형인 '복지 신청주의'와 부족한 예산·인력의 한계 속에 '돌봄 사각지대'에 갇혀 있어선 결코 안 된다. 제도의 사각 속에서 고립된 채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코 잊지 말고 실행으로 답해야만 한다.

작가 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지치구공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전용길 지정

더 안전하고 여유롭게 걸어요

'타지 말고, 걷기' 원칙... 자전거 및 이륜차는 탑승 금지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를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 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도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 내 산책로를 보행자전용길로 지

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정은 통해 공원 내 자전거 주행을 통한 보행자 충돌 위험을 낮추고 숲의 소리·빛·냄새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행 속도를 회복하여,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원칙은 '걷기'로 서울숲근린공원 내 길에서 자전거의 '탑승·주행'은 금지되며, '끌고 이동'은 가능하다. 응급·재난 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불가피한 공용 목적 차량은 지정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

특성정수센터에서 한강에 이르는 구간은 계속해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해당 구간을 통해 뱃나루길에 따라 자전거 주행을 즐길 수 있으며 시승방사장과 근총식물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가능하다. 핵심 구간인 서울숲근린공원에서만 자전거 이용이 제한된다.

시민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숲근린공원 내 주요 진입·출입부에는 보행자전용길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주말·휴일 시간대 현장 안내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보행자전용길 지정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공원 누리집(parks.seoul.go.kr), 인스타그램(@seoul\_parks\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02-460-2974)로 연락하면 된다.

박미성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서울숲 공원길의 주인은 보행자"라며 "같은 속도도 숲을 되찾아 자전거 이용 시면과도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동선 안내 및 충분한 홍보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꽃물결, 충남의 봄

건강한 미래와 원예·치유를 주제로 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태안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원예의 치유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지친 관람객에게 깊은 휴식과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람회와 맞닿은 꽃지해수욕장은 태안을 대표하는 바다 중 한 곳으로, 특히 서해의 절경으로 꼽히는 해질녘 할미·할아버비 사이로 찾아드는 낙조가 방문객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박람회 부형사장인 안면도수목원은 솔향 가득한 숲의 고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산정원과 자생수원 등 주제별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안면도 특유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 끝자락,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는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로 봄의 절정을 맞이한다.

축제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온양온천역·곡교천·현충사 일원에서 열리며, 장군의 애국정신과 국난 극복의 위업을 계승하면서 충남의 봄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충(忠)·효(孝)·애(愛) 세 가지 주제로 구현한 행렬과 노 젓기 체험, 전술 비연 날리기 등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성웅의 열이 깃든 현충사는 장군이 무고 급제 전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속중이 하사한 '현충사' 휘호 아래 장군의 영정을 모신 본전과 난중일기, 장검 등 주제별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안면도 특유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 끝자락, 아산은

World Times magazine information box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editorial board members.

파도처럼 밀려온 음의 향연... '재즈 거장' 윈튼 마살리스에 기립박수

그래미 9회 수상 '살아 있는 전설'...약 40년 이끈 빅밴드와 24년만 내한

15인조가 쌓아 올린 풍성한 사운드...멤버 기량 돋보인 솔로 연주와 조화

예술살을 넘긴 미국 재즈 거장이 트럼펫에 숨을 불어넣자 무대에서 음(音)이 자유자재로 퍼다녔다.

객석을 짙게 채운 1천300여명의 관객은 숨을 죽이고 그가 들려주는 유려한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드럼, 베이스, 피아노와 조화를 이룬 본고장 재즈 사운드가 거대한 파도가 돼 객석으로 밀려왔다.

미국 재즈 음악계 살아있는 전설로 꼽히는 트럼펫 연주자 윈튼 마살리스(65)가 자신이 이끄는 15인조 빅밴드 재즈 옛 링컨센터 오케스트라(이하 JLCO)와 지난 25일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내한 공연을 열었다.

지난 2023년 같은 장소에서 7인조 편성으로 내한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그가 JLCO를 이끌고 한국을 찾은 것은 2002년 예술의전당 콘서트 이후 24년 만이다.

마살리스는 1961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나 17세에 줄리아드 음악원에 입학해 재능을 드러냈고, 전설적인 재즈 밴드 '아트 블레이크 & 더 제즈 메신



저스를 거쳐 19세에 자신의 밴드를 꾸렸다.

그는 이후 전 세계 66개국 856개 도시에서 5천3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고, 평생 한 번 밖에 안기 어렵다는 '그래미 어워즈'를 9회 수상하며 음악성을 인정 받았다.

마살리스는 '블러드 온 더 필드'(Blood on the Fields)로 재즈 최초로 풀리처 음악상을 받았고, 1983년과 1984년에는

사상 최초로 재즈와 클래식 부문에서 동시에 그래미를 수상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마살리스는 1987년 뉴욕 링컨 센터에서 재즈 콘서트 시리즈를 시작하며 JLCO를 창단했으며 약 40년 동안 악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2026~2027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JLCO의 예술감독·음악감독에서 물러날 뜻을 밝혀 이번 공연은 '마살리스

표 JLCO'를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많은 재즈 팬의 관심을 모았다. 그의 명성에 걸맞게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공연 티켓은 총 2천600석 전석 매진됐다.

마살리스는 "오늘 밤 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짧막하게 인사를 건넨 뒤 공연의 막을 올렸다.

마살리스와 JLCO는 첫 곡 '멘디소로차 스윙'(Mendizorrotza Swing)부터 '비어든'(Bearden), '투-스리스 어드벤처'(Two-Three's Adventure) 등을 지나 앙코르곡 '버디 볼든스 블루스'(Buddy Bolden's Blues)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생기 넘치면서도 우아한 재즈의 정수를 선보였다.

마살리스를 포함한 트럼펫 4명, 트롬본 3명, 색소폰 5명, 피아노, 베이스, 드럼 등 15명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사운드는 트리오나 퀸텟 편성에서는 접할 수 없는 풍성함과 입체감을 선사했다.

멤버들은 무대마다 트럼펫, 트롬본 혹은 피아노 솔로 연주로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그러면서도 밴드 전체의 사운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절묘하게 완곡을 조절했다.